

학교생활

## 벌점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2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많이 덜렁대는 편이어서 명찰을 잊고 안 달거나 교복 조끼를 안 입어 벌점을 많이 받았어요. 학급 분위기도 소란스러워 선생님들이 단체 벌점도 많이 주셨다고 해요. 작년엔 간담간담하게 처벌을 면한 것 같은데 올해도 벌점이 많을까 걱정됩니다. 혹시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해요.

김은정(47·서울 양천구 신정동)

## A 소속 학교 내부 규정을 살펴보세요.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라면 상벌점제 관련 내부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앱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 자치 활동이 활성화돼 학생 생활 규정이나 상벌점 관련 규정이 학생 자치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서울 용문고 최낙원 교감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벌점제는 연 단위로 운영되는데 벌점이 20점을 넘으면 교내 봉사, 30점 이상은 사회 봉사, 50점 이상은 특별 교육 이수, 60점 이상은 출석 정지 등의 순으로 처벌 수준이 올라간다. 그러나 상벌점제는 조심하고 반성하라는 의미이지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처분을 내리기 전 ‘벌점 상쇄 봉사 활동’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학교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부 기록과 관련해서는 현재 학생부에 기록되는 징계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뿐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산고 이창우 교사는 “다만 학교생활교육위원회(구 학교선도위원회)가 열려 정식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교육청에서 확정 되면 학생부에 기재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 MORE TIP

벌점이 많아 걱정된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벌점 상쇄 기회를 꼭 이용하기 권합니다.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들이 기말고사 후 교내 환경 정화 등의 교내 봉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참가한 후 생활지도 교사의 확인을 받으면 벌점을 상쇄해 줍니다. 또 학생자치법정이 있는 학교라면 법정에 자원해 자신을 변호하거나 법정에서 부과된 벌을 성실히 이행하면 벌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입시

## A 대입 정보 포털 또는 입학처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세요.

먼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디가(www.adiga.kr) > [대학/학과/전형 정보] > [학과 정보]로 들어가 [전년도 입시 결과]를 검색하면 합격생 내신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인하대 기계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 내신 등급을 확인하려면, 인하대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inha.ac.kr) > [수시] > [전년도 입시 결과]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의 최종 합격자 내신 등급만을 보고 합격을 예상해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일선 교사는 조언합니다. 내신 등급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배재고 장지환 교사는 "교과 산출 방식이 대학마다 다르고 합격 관련 발표가 합격자 기준인 곳도, 등록자 기준인 곳도 있다. 점수도 평균, 80%, 100% 등 기준이 다양하다. 입시 모집 요강을 보면서 대학별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하여 유불리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2학년에 해당하는 현재 고2의 경우 진로선택 과목에서 등급 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별로 교과 전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세요. ㉠

**현재 내신 등급으로  
목표 대학의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어디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될까요?**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내신이 좋지 않아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신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보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싶더군요. 교과 전형을 통해 현재의 내신 등급으로 합격 가능한지 예상해보려면 어디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최은주(45·서울 송파구 잠실동)

### MORE TIP

장 교사는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면 이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니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신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니 그 부분도 감안해 교과에 내 전형이 아니라며 미리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